

2007년 4/4분기 축산관측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8월 25일 발표한 2007년 4/4분기 축산관측에 따르면 한육우는 상승세 지속, 젓소 사육두수 감소세 지속, 돼지는 18~19만원으로 전망했다. 산란계와 육계는 사육두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본지는 주종별 전망요약을 게재한다.

<한육우>

9~11월 한우 수소 465~47만원 전망

사육두수전망

'06년 하반기 인공수정 두수가 전년 동기대비 9.6% 증가해 9월 한육우 사육두수는 전년보다 10.8% 증가한 223만 9천두로 예상된다. 9~11월 송아지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06년 11월~'07년 1월 인공수정 두수는 '05년 동기 대비 20.5% 증가해 사육두수 증가세는 계속될 전망이어서 12월 사육두수는 전년 동기보다 10.4% 증가한 223만두로 전망된다.

산지가격전망

8월 1일 검역 중단 이후 산지가격이 상승세로 만전 되었으나 8월 27일 검역 재개 결정으로 가격 조정이 예상된다. 추가 가격 하락 가능성 있으므로 농가의 흥수준하 자체가 요망된다. 9~11월은 주적으로 인한 최고기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시기이나, 최고기수위량과 도축두수 증가로 한우가격의 계절적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9~11월 한우 암소 산지가격은 460~470만원대(600kg 기준), 수소 465~475만원대, 송아지 가격은 195~205만원대로 전망되나, 미국산 최고기로 인해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

<젓소>

분유재고 증가세

사육두수전망

인공수정 실적을 이용하여 추정된 올해 9월, 12월 1세미만 잠재력 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각각 14.7%, 12.8% 감소했다. 9월 사육두수는 전년 동기보다 3.3% 감소한 45만 2천두, 12월에는 3.2% 감소한 44만 9천두로 전망된다.

원유생산량전망

9~11월 착유우 두수는 감소할 전망이지만, 두당 산유량 증가로 원유 생산량은 오히려 증가해 하반기 두당산유량은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3/4분기 원유 생산량은 53만 4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 4/4분기에도 54만 톤으로 1.0% 증가전망된다.

<돼지>

9~11월 성돈 산지가격 18~19만원 전망

돼지소모성 전환에 따른 폐사두수가 여전히 많아 사육두수 증가 폭은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모돈수 증가로 9월 사육두수는 전년 동기보다 1.2% 증가한 948만 2천두, 12월에는 0.4% 증가한 941만 8천두로 전망된다.

출하두수전망

올해 8~9월에 출하예정인 2~4개월령 마리수는 전년 6월보다 5.1%, 10~11월에는 2개월령 미만 마리수는 4.0% 증가했으며, 8~11월 출하에 영향을 미치

는 올해 4~7월 육성용 배합사료 생산량 4.4% 증가한 것으로 보아 9~11월 출하두수 증가가 예상된다.

산지가격전망

7월까지 돼지고기 수입량이 증가하였고, 출하두수 증가가 예상되며, 27일부터 마약산 쇠고기 집역 중단 조치가 해제되어 9~11월 생돈 산지가격은 전년 동기 간보다 낮은 전망이다. 계절적으로 비육돈 준하가 늘어나는 9~11월의 생돈(100kg) 산지가격은 전년 동기 간(20만 8천원)보다 11% 낮은 수준인 18~19만원으로 예상된다.

<산란계>

10~11월 계란 가격 700~800원 전망

사육수수전망

병아리 생산 잠재력이 높고 농가의 도태의향이 낮아 9월 사육수수는 전년보다 3.6% 증가한 5,736만 수, 12월 산란계 사육수수는 전년보다 1.1%, 9월보다는 0.9% 증가한 5,736만 수로 예상된다. 새로이 계란 생산에 가담하는 실용계 병아리수가 증가하고, 도태의향 또한 낮아, 9월 및 12월 산란용 마리수는 전년 동기보다 각각 3.8%, 1.6% 증가한 4,446만 수, 4,499만 수로 전망된다. 병아리용 배합사료, 산란용 마리수 증가에 따라 9~11월 계란 공급량은 전년 동기 간보다 3%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계란가격전망

계란 성수기인 추석으로 9월 계란 산지가격은 8월보다 상승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년 동기(94원)/특란(10개)보다는 하락한 800~900원으로 예상된다. 10~11월에는 계란 생산량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 간(82원)보다 낮은 700~800원으로 전망된다. 노계도태가 지속적으로 지연된다면, 계란의 품질 저하 현상과 가격 약세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육계>

9월 육계 가격 900~1,100원 전망

사육수수전망

3월 병아리 생산수수 증가로 9월 육계 사육수수는 8월보다 28.6% 감소하나, 전년보다는 3.6% 증가한 5,986만 수로 전망된다. 종계업식수수 증가로 3월 이후 '08년 1월까지 육용 실용계 병아리 생산 잠재력이 점점 높게 나타나, 향후 전년 대비 사육수수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육수수 증가에 따라 9월 노계수수도 8월보다는 10.5% 감소하나, 전년 동기보다 5.9% 증가한 5,460만 수로 전망된다.

육계가격전망

노계수수가 증가하고 냉동 닭고기 미축량이 많아 가격 하락요인이 있으나, 늦더위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여(기상청) 9월 육계 가격은 전년(1,080원)과 비슷한 900~1,100원에서 형성될 전망이다. 10월 이후인 말까지 병아리 생산 잠재력이 계속 높게 나타나, 육계 가격 약세는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공급과잉이 우려되므로 중계도태 유도 필요하다.

